

## 제5회 광양 K-POP 페스티벌 최종 라인업 확정

1일차 경서, 아홉, 우디, 트리플에스, 헤이즈 등의 최정상 아이돌  
2일차 제1부 어반자카파, 웬디, 제2부 지원이, 박군 등 스펙트럼 확장

광양시가 전 세계를 휩쓰는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영향으로 한층 주목받고 있는 글로벌 관광 축제 제5회 광양 K-POP 페스티벌의 라인업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10월 17일과 18일 이틀간 광양 공설운동장 일원에서 개최될 제5회 광양 K-POP 페스티벌은 1일 차와 2일 차로 라인업을 구분해 세대별, 취향별 장르의 스펙트럼을 넓혔다.

1일 차에는 경서, 아홉, 우디, 트리플에스, 헤이즈 등 최정상 아이돌, 2일 차는 제1부 어반자카파, 웬디, 제2부 지원이, 박군 등 가창력을 자랑하는 가수들이 열정의 무대를 선사한다.

입장권 배부는 총 3차에 걸쳐 진행된다. 1차는 오는 9월 28일 오전 9시 음·면·동 사무소를 통한 배부, 2차는 9월 29일 오전 10시 광양시 통합행정 플랫폼 모바일 앱 'MY광양'을 통한 온라인 배부, 마지막 3차는 행사 당일 현장 배부다.

시는 오는 9월 22일 관계기관 보고회를 열어 입장권 배부 및 안전·방역관리 대책 등 성공 개최를 위한 추진계획을 공유하고 행사 운영 전반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후 주 관광과장은 "제5회 광양 K-POP 페스티벌은 국내 최정상 아이돌 그룹에서부터 발라드, 댄스, 트롯 등

강렬한 퍼포먼스와 뛰어난 가창력을 선보일 최강의 라인업을 확정했다"며 "시민이 일상에서 즐기고 관광객이 찾는 명실상부 글로벌 관광축제로 발돋움한 광양 K-POP 페스티벌을 빈틈없이 준비해 격조 있고 수준 높은 관공수용태세로 관람객을 맞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제5회 광양 K-POP 페스티벌을 기념하는 '전국청소년댄스경연대회' 참가자를 오는 9월 26일까지 모집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댄스팀은 5분 이내 영상을 참가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등과 함께 이메일(winkers12@naver.com)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 및 기타 문의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주권사(010-2061-7869)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받을 수 있다. 광양/신선호 기자

## 제2회 영암 숲순환경영화제, 월출산도갑사서 26일 개막

영암 청년마을 달빛포레스트를 운영 중인 그로브임팩트팀이, 26-28일 군사면 월출산도갑사와 학산면 독전초, 기예무단에서 '제2회 숲순환경영화제'를 개최한다. 행정안전부와 영암군의 지원을 받아 영암 청년을 포함한 주민이 만드는 영화제는, 환경·생태·기후위기 등의 주제를 다룬 국내 장·단편 영화 27편을 선정해 상영한다.

특히, 쓰레기 없는 영화제를 표방해 영화 관람과 환경 보전을 동시에 이루는 지속가능한 축제의 모범을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영화제는 월출산도갑사에서 임종완 감독의 장편 다큐멘터리 <꽃풀소>로 개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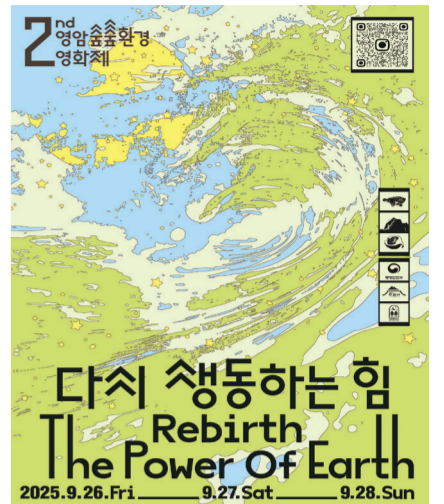
영화는 구조된 소 15마리를 위한 보호구역(sanctuary) 조성 과정을 담아내며, 생명 존중의 메시지를 전한다.

폐막작은 기예무단에서 상영되는 황윤 감독의 다큐멘터리 <수라>, 세만금간적 사업 이후 남아있는 갯벌을 기록한 작품이다.

황 감독은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갯벌을 보여주며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전한다.

영화제에서는 다채로운 부대행사가 열려 관객들의 영화보는 재미를 더한다.

독천에서는 '아이폰 배터리 셀프 교체' '독천 생태 출사' '기후 프레스크 보드게임' '제로웨이스트 플라마켓' 등 환경보호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월출산도갑사에서는 남생이 방생, 다례제, 공양체험, 생태문화 해설 등 영암의 자연·문화를 느끼는 프로그램이 열린다.

영암군은 이번 영화제가 지속가능한 지역 문화·환경에 기여하는 축제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영화 예매와 영화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숲순환경영화제 인스타그램(sseff.official) 참여 링크, 온라인 '타이티켓(TINY TICKET)'에서 볼 수 있다.

청년마을 달빛포레스트는 지난해 행정안전부의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돼 지역 생태환경 자원으로 문화 기획, 일거리 실험 등을 진행하고, 학산면에 청년 커뮤니티 공간 '비움의 숲'을 운영하고 있다.

영암/김희선 기자

## 순천시 어울림도서관, 개관 1주년 맞아 다채로운 행사 마련

'9월 독서의 달' 연계한 이벤트·야외도서관 등 시민 참여형 행사 풍성

순천시 어울림도서관이 개관 1주년을 맞아 '독서의 달(9월)'과 연계한 다양한 기념 행사를 한 달간 진행한다.

주요 프로그램은 ▲독서 편식 바로잡기! 럭키 영수증 이벤트 ▲어울림도서관 개관 1주년 「내가 좋아하는 어울림」 SNS 이벤트 ▲「어울림을 찾습니다」 캐릭터 응모 ▲웹툰 작가 진로 특강 「웹툰, 직업이 된다」 ▲우주 SF 소설 「외계인과 함께」 북큐레이션 등이다. 참여형 이벤트는 오는 21일까지 진행되며, 참여 결과물은 10월 어울림도서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또한 10월 3일에는 개관 1주년을 시민 모두와 함께 축하하는 자리로 그린아일랜드에서 가을 버전 야외도서관 「책은 그린(Green) 정원」을 운영한다. 이번 야외도서관은 '읽'과 '치유'를 주제로 지친 일상 속 시민들에게 따뜻한 휴식과 내면의 회복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12일 문을 연 어울림도서관은 순천시의 미래 비전을 반영해 애니메이션·우주항공·정원 특성화 도서관으로 자료 구성과 프로그램 운영을 이어왔다. 개관 이후 1년간 20만 명의 시민이 방문



했으며, 90개의 기관·단체에서 1,500여 명이 다녀가는 등 지역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매김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1년간 어울림도서관이 지식과 문화, 휴식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시민들의 사랑을 받았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고 함께 성장하는 도서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정성인 기자

## 강진군, '불의 미학, 함께 빛나는 청자의 빛'

고려청자박물관 청자 화목가마 불지피기 행사 27일 개최

관장과 민간요 대표가 참여해 성공적인 행사를 기원하며, 점화식에는 참여를 희망하는 관광객들도 함께할 수 있어 화합의 의미를 더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관요 화목가마 작품을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한 상시 할인도 병행된다. 오후

된 실제 작품을 오는 10월 예정된 '강진만 춤추는 갈대축제' 기간 중 경매를 통해 판매될 예정이다.

2부에서는 기존 오후 작품을 활용한 화목가마 요출 연출이 펼쳐지며, 3부 순서에서는 민·관이 함께 어울리는 뒷풀이가 마련돼 행사 관계자들과 관광객이 함께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동시에 관광

## 강진군, '불의 미학, 함께 빛나는 청자의 빛'

고려청자박물관 청자 화목가마 불지피기 행사 27일 개최

관장과 민간요 대표가 참여해 성공적인 행사를 기원하며, 점화식에는 참여를 희망하는 관광객들도 함께할 수 있어 화합의 의미를 더한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관요 화목가마 작품을 50% 할인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음식점과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한 상시 할인도 병행된다. 오후

객을 위한 물레 체험, 조각 체험 등 청자 제작 관련 참여형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될 계획이다.

최영천 고려청자박물관장은 "청자 화목가마 불지피기 행사는 단순한 재현을 넘어, 관요와 민간요, 그리고 관광객이 하나 되는 전통문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를 통해 강진 청자의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리고, 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진/손경설 기자

## 북구, 한강 작가 '소년이 온다' 기반 인문학 프로그램 첫 추진

한강 작가 노벨 문학상 수상 이후 지역 내 인문학 관심 제고 목적

광주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높아진 주민들의 인문학적 관심을 충족하고 독서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강 작가의 『소년이 온다』를 중심으로 전문가 강의와 소설 속 배경지를 탐방하는 문학기행으로 구성됐다.

먼저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광주문학관에서 정남남 前 순천기적의도서관 관장을 강사로 하는 ▲노벨문학상과 작가 한강 ▲한강 작가 시집 읽기 ▲소년이 온다 깊이 읽기 등 3회차의 강의를 제공한다.

회차별 강의 이후에는 작가의 작품세계에 깊게 몰입할 수 있도록 참여자들 간

의견 및 감상을 공유하는 모둠 토론과 필사노트 꾸미기, 작가에게 편지쓰기 등 독후활동이 이어진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일정인 문학기행은 전남대학교-효동초등학교-문재학 열사 집터를 방문하는 '작가의 길 투어'와 전일빌딩-옛 적십자병원-5·18민주화운동 기록관으로 이어지는 '소년의 길 투어' 순으로 진행돼 실감 나는 문학 체험이 가능할 전망이다. 참여자는 오는 22일부터 선착순으로 총 30명을 모집하며 초등학교 5-6학년 또는 중학생 자녀를 둔 북구 주민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참가 신청은 네이버폼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고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문화예술과(☎062-410-8207)로 문의하면 된다.

/송현근 기자

보다나온 농어촌

지가 있다면

농지

금이 있습니다

농어촌

금 바로 가입해야 할

똑같은 노후 설계 찬스~

지원대상

- 농지를 소유한 만60세 이상 농업인/영농경력 5년 이상(전체 영농기간 합산)

대상농지

-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는 농지
- 지원대상 및 대상농지에 대한 제한사항은 별도 문의

연금수령액

- 농지가격과 연령에 따라 결정(월 300만원 한도)
- 농지가격 : 개별공시지가가 100% 또는 감정평가액 90%

가입혜택

- 소유농지를 담보로 평생 연금 보장
- 담보농지는 자경 또는 임대소득 가능
- 6억원 이하 농지 재산세 감면

상담문의 | 1577-7770 www.fbo.or.kr